

1 개요

화순본향 원당밭 일퇴중조 본풀이는 안덕면 화순리의 원당밭에 좌정한 이렛당신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원당밭할망은 예래본향당의 둘째 딸로 왜배가 드는 것을 구경하다가 돌보던 아기가 소에 차여 죽게 한 까닭에 부모 눈 밖에 나서 화순리 원당밭으로 좌정하였고, 다른 자매들은 부모가 갑자기 가난해지는 바람에 제각기 인근 마을로 흩어져 이렛당신이 되었다.

2 내용

아버지 열리 당올래당 하르방, 어머니 중문이 불묵당이 말도 아홉, 되도 아홉, 홉도 아홉, 기도 아홉 부자로 살았다. 자식은 딸을 일곱 성제 낳았다. 당올래당 한집이 우리는 귀천을 모른다고 하니, 종이 듣고 귀천을 알고 싶냐고 하고 말, 되, 홉, 키를 모두 씻고 얹어놓으라고 하였다. 그 말대로 하였더니 흉년이 되어 딸 일곱을 각기 분산시키게 되었다. 큰딸은 서난드르 큰당에 좌정하고, 둘째 딸은 화순리 원당밭에 좌정하였다.

옛날 왜배에서 왜놈들이 온다고 하니, 둘째 딸은 아기구덕을 지고 조순도리로 올라가 아기 구덕을 잔디밭에 내려두고 바닷가로 가서 구경하였다. 아기 있는 곳에 가서 보니 아기는 소와 개가 싸우는 바람에 소 발에 차이고 뿔에 찔리고 개에 물리고 해서 죽어 있었다. 둘째 딸은 부모 눈 밖에 나니 원당밭에 좌정하였다.

셋째는 사계 청밭할망으로 좌정하고, 넷째는 감산리 좌정하고, 다섯째는 색달리 좌정하고, 여섯째는 예래 좌정하고, 일곱째 막내는 세숫물을 잘 떠놓아 불묵당 옆에 좌정하였다.

원당밭할망은 소에 차인 까닭에 사람들이 당에 갈 때에는 소고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3 특징

안덕면 화순리에 거주하던 고선여 심방의 전승자료이다. 이야기의 맥락이 순탄치 않다. 원당밭할망이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여 아기가 소에 차여 죽는 바람에 부모 눈 밖에

났다는 대목은 흔히 보기 어려운 것이다.

예래본향당이 부자였다가 종의 말을 듣고 말, 되, 흙 등을 씻고 뒤집어 놓았다가 일시에 망하였다는 것은 더러 볼 수 있는 전승이다. 다만, 대체로 종이 아니라 증으로 설정되는 것이 예사이다. 사계리 <큰물당본풀이>에서도 유사한 대목을 볼 수 있다.

4 핵심어

당올래당, 불묵당, 서난드르, 왜배, 조순드리, 소고기, 안덕면 화순리, 원당반할망, 예래본향당, 원당밭, 이렛당신, 청밭할망, 소, 개

5 원전 서지사항

화순본향 원당밭 일퇴중조(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